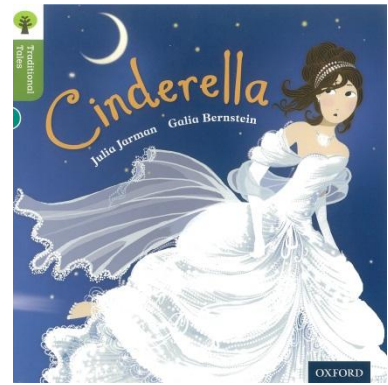




Stage 7

7단계 신데렐라

작가 줄리아 자르만

삽화가 갈리아 베른스테인

이야기에 대하여

트래디셔널 테일즈는 오랜 세월을 걸쳐 전해 내려오는 전래동화입니다. 신데렐라 이야기는 나라마다 다양한 버전으로 존재하는, 동화들 중에 가장 오래되고 잘 알려져 있는 작품중의 하나입니다. 거지에서 부자가 된다는 고전적인 내용입니다. 시대를 넘어서서 전해지는 이 이야기를 함께 반복해서 나누어 봅시다.

함께 읽기를 위한 가이드

함께 말하기

- 책 표지를 보고 함께 제목을 읽어보세요. 신데렐라라는 이름이 어디에서 유래된 것인지 물어보세요. cinders의 뜻과 그녀의 이름에 붙게 된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cinders는 타고 남은 재를 뜻합니다) “그녀는 왜 뒤를 돌아보게 될까?” 하고 물어보세요.
- 요정할머니가 등장하는 7페이지를 펴고 그녀의 마법주문과 그녀가 나올 때마다 번쩍 비치는 빛에 주목하게 한 후, “이 사람은 누구일까?” 하고 물어보세요.
- “요정할머니는 마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 신데렐라를 도와줄까? 마법의 도움을 받는 다른 이야기를 알고 있니?” 하고 물어보세요.

이야기 속 단어들

- 아이들이 이 책에 나오는 대부분의 단어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believe, determined,

eagerly, invitation, jealous, smoking 같은 단어들은 조금 어렵고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 아이들이 이 단어들을 소리 내어 읽고, 문장 안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 필요하다면, 아이에게 단어들을 읽어준 뒤, 뜻을 설명해주어도 좋습니다.

이야기를 읽으면서

-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해, 아이에게 이야기를 읽어달라고 해보세요. 아이는 한 챕터 이상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 이야기에 쓰이는 표현을 알려주세요. 옛날이야기라는 것을 짐작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을 알려주세요. 예) Once upon a time..., to the end of their days
- 서술적인 표현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보세요. 예) cried, laughed
- 아이가 책을 읽으며 많은 표현들을 읽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표현에 덧붙여진 구두점에 유의하여 다시 한 번 큰 소리로 책을 읽어보세요.
- 중요한 문장은 의미에 유의하여 반복해 읽어보세요.

아이들을 많이 칭찬하여 책을 계속 읽게 해주세요!

P2)

옛날에 신데렐라라는 이름을 가진 한 소녀가 살았어요. 사랑하는 아빠가 있었지만 자주 먼 곳으로 떠나곤 했어요. 새엄마는 신데렐라를 미워하고 자기가 낳은 못된 두 딸만 예뻐했어요.

그들은 신데렐라에게 하루 종일 부엌일만 시켰어요. 설거지를 하고, 마루를 쓸고, 불을 지폈어요. 심지어 부엌에서 잠을 자야 했지요. 어느 날 언니들이 부엌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이것 좀 봐, 신데렐라야. 임금님이 보낸 초대장이란 말이지!” 하고 뚱뚱한 언니가 말했어요.

“우린 궁전에서 열리는 무도회에 갈 거야.” 화쟁이 언니가 말했어요.

“너 빼고 우리만 말이야.” 두 언니는 킬킬거렸어요.

P5)

언니들은 신발과 옷을 가지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가엾은 신데렐라가 옷을 입혀주는 동안에도 언

니들은 무도회 때문에 싸우고 있었지요.

P6)

언니들이 무도회에 가버리자 신데렐라는 무척 슬펐어요. “나도 무도회에 가고 싶은데...”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갑자기 어두침침한 부엌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애야, 너도 갈 수 있단다.” 신데렐라가 올려다보니 어떤 할머니가 서있었어요.

“뭐, 뭐라고요? 누구세요?”

“나는 요정 할머니란다. 네가 무도회에 갈 수 있다고 내가 말했지.” 할머니가 말했어요.

“하지만 어떻게요?” 신데렐라가 소리쳤어요.

“물론 마차를 타고 가야지.” 요정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어요.

P8)

할머니는 신데렐라에게 정원에 가서 호박을 따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요술지팡이를 흔들자 번쩍! 하고 빛이 나왔어요. “자, 이젠 말이 필요하겠군. 이 생쥐들을 뒷에서 꺼내보렴.” 할머니가 말했어요. 신데렐라는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할머니가 요술지팡이를 흔들자 번쩍! 하고 빛이 나왔어요. 네 마리 백마가 금빛 마차 앞에 서있었어요. “자, 명랑한 마부만 있으면 되겠구나!” 라고 말하면서 할머니는 요술지팡이로 고양이를 가리켰어요. 번쩍! 하고 빛이 비추었어요.

“이제 무도회에 갈 수 있겠지?” 할머니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옷은 어떻게 해요?” 신데렐라가 낡은 옷을 내려다보면서 말했어요.

“오! 깜빡할 뻔 했구나.” 할머니는 웃으며 말하더니 다시 요술지팡이를 흔들었어요. 그러자 번쩍! 하고 빛이 비추었어요.

P12)

신데렐라가 자기 몸을 내려다보니 지금까지 본 온 중에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이것도 신고 가거라.” 할머니는 신데렐라에게 구두를 한 켤레 건네주었어요. 유리로 만들어 진 구두로 발에 꼭 맞았어요. “자, 준비가 다 됐으니 재미있게 놀다 오렴. 그런데 한가지 꼭 명심해야 할 일이 있단다. 밤 12시까지 는 반드시 집으로 돌아와야 해. 시계가 12시를 알리면 모든 마법이 풀리게 된단다. 마차는 호박으로 바뀌고 네가 입은 드레스는 다시 누더기로 변하고 말 거야.”

“꼭 기억할 게요! 고맙습니다 요정 할머니.” 신데렐라는 마차 올라 타며 소리쳤어요.

P15)

마부가 채찍을 한번 휘두르니 말들은 별이 쏟아지는 밤 속으로 달려나갔어요.

P16)

한편 궁전 계단에 서있던 왕자는 지루해 하던 참이었죠. 너무 많은 공주들이 있었고, 인사를 나누어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어요. 바로 그 때 마차 한 대가 멈추어 서더니 바로

P17)

신데렐라가 내려섰어요. “누구지?” 하고 왕자가 물었어요. 왜냐하면 그녀만큼 아름다운 사람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말해줄 수 없었어요. 아무도 그녀가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이었죠. 그녀의 언니들조차 몰라봤어요.

P18)

언니들은 가까이에서도 신데렐라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다만 질투할 뿐이었죠. “왜 왕자님은 우리를 쳐다보지 않는 걸까?” 하고 소리쳤어요. 왕자님은 신데렐라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왜 왕자님은 우리와 춤을 추지 않는 걸까?” 왕자가 신데렐라에게만 춤을 청하는 것을 보고 언니들이 소리쳤어요.

P20)

왕자님과 춤을 추고 있다니!

신데렐라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너무 즐거워서 12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기 시작할 때까지도 요정할머니의 말을 그만 잊고 있었답니다.

한번! 두 번! 세 번!

신데렐라는 계속해서 춤을 췄어요.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계속 춤을 췄어요.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신데렐라는 갑자기 요정 할머니의 말을 기억하고는 문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죠.

P22)

“돌아와요! 돌아와요!” 왕자가 소리쳤지만 신데렐라는 계속 뛰어갔어요.

열 번!

문에 다다르자 되도록 빨리 계단을 뛰어내려갔어요. 구두 한 짝이 벗겨졌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열한 번!

“돌아와요, 돌아와!” 왕자의 외침소리를 들으면서 신데렐라는 정신 없이 사방을 둘러보았어요.

열두 번!

“마차와 말이 어디 갔을까?” 그녀가 소리쳤어요. 그녀는 슬프게도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부엌으로 말이죠. “다시는 왕자님을 볼 수 없겠지.” 신데렐라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P25)

한편 왕자는 사랑에 빠진 아름다운 공주를 찾아 내기로 결심했어요. “내일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집을 조사해서 이 유리구두의 주인을 찾아 내고야 말겠어.” 왕자가 소리쳤어요.

P26)

다음날 아침 일찍 왕자는 시종과 함께 조사를 시작했어요. 저녁 때가 되어 신데렐라의 집에 도착했어요. 언니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가 먼저 신어 볼 테야.” 첫째 언니가 소리지르자.

“안돼, 내가 먼저야.” 하고 둘째 언니가 소리쳤어요. 첫째 언니가 먼저 신어본 다음, 둘째 언니가 구두에 발을 넣어보려고 애를 썼어요. “미안합니다. 발이 너무 길군요. 이 집에 다른 사람은 없나요?” 시종이 말했어요.

P28)

“저요. 제가 신어볼까요?” 신데렐라가 조용히 들어서며 말했어요.

“네가 신어본다고? 어서 부엌에나 가버려.” 깔깔거리며 언니들이 비웃었어요.

그러나 너무 늦었어요. 시종이 신데렐라의 발에 구두를 신겨보는데 꼭 맞는 것이었어요!

왕자님은 사랑스런 눈빛으로 신데렐라를 바라보았어요. “나와 결혼해주겠소?”

누더기 옷을 걸친 그녀를 보고서도 여전히 마음이 변치 않은 왕자님을 보고 신데렐라는 “네” 하고 대답했어요.

P30)

왕자님은 잘 생긴 얼굴만큼이나 친절했어요. 신데렐라는 생각했던 대로 행복했어요. 그들은 결혼을 하고 죽을 때까지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기를 위한 가이드

줄거리 이야기하기

- 언니들을 모습을 sulky(뿌르뚱)하고 stroppy(짜증을 잘내는)하다고 표현되어 있는 4페이지를 보고 난 후, “이런 표현은 언니들이 어떻다는 것을 말해주니?” 하고 물어보세요.

- 무도회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신데렐라의 기분이 어땠을 지를 나타내주는 단어들을 함께 생각해 보세요.
- 시계가 매 시간마다 몇 번을 울리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후, "시계가 12시를 알리기 시작했을 때 이 이야기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지?" 하고 물어보세요. 시계가 울릴 때마다 무슨 일이 생겼는지 말해보도록 도와주세요.
- "요정 할머니는 왜 신데렐라를 도와주었을까?" 하고 물어보세요.

이야기 지도를 보며 줄거리 말하기

- 책을 다 읽고 난 뒤, 32쪽에 나와 있는 이야기 지도를 이용하여 다시 함께 줄거리를 이야기 해 보세요. 각각의 그림은 이야기의 주요장면을 보여줍니다.
- 아이가 스스로의 표현을 사용해 이야기를 다시 말해보게 하세요. 아이와 함께 하거나, 또는 서로 번갈아 가며 줄거리를 이어나가도 좋습니다.
- 주인공의 기분을 나타내주는 단어들을 사용하도록 도와주세요.

예) surprised, alarmed, overjoyed, annoyed

뒷 표지

신데렐라

신데렐라는 무도회에 가고 싶지만, 부엌에 남아서 일을 해야만 하는 신세예요. 어떻게 될까요?